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했다.

제목 : 특별한 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그리고 의미있는 날이었다.
 오늘 새벽 7시에 일어나 아빠와 나는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다.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아빠와 나는
 지렁이와 오징어, 미꾸라지를 사서 낚시대 꼬리를 하였다. 주와 꿀, 미끼 등
 여러가지를 들고 배를 타고 낚시포인트로 갔다. 거기에서 잡방법을 아빠
 게 배우고 낚시를 시작하였다. 은이종지양케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잡지 못하였다. 첫번째 포인트에서는 못잡았고
 두번째 포인트에 갔다. 그런데 갑자기 낚시대 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낚시대를 한번 위로 치켜든 다음 줄을 물렸다. 거기에는
 놀래미가 들어있었다. 기분이 날아갈듯 좋았다. 낚시는 8시~1시까지
 이기 때문에 배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다. 나는 아빠와 라면을
 끓여먹었다. 맛있었다~ 다음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추웠다. 그래서 나는 잠깐 냉방단에서 기다리고 아빠는 계속
 낚시를 했다. 이상하게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마지막
 포인트는 들이 많았기였다. 아빠와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해보았다.
 그때 커다란 우럭이 잡혔다. 아빠가 잡은것이다. 크는 아주 컸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정말 좋았다. 낚시가 끝나고 집까지 와서
 회를 떠먹었다. 아빠와 내가 잡아서 더 맛있었다. 영미도 맛
 있다고 하였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특히 아빠랑서 더 재미
 있어던것 같다.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었다.